

민보배 고현정, 복귀작 '너를 닮은 사람'에서 명연기 보여준다

(민보배 배우)

(JTBC 드라마)

고현정(사진)은 1989년 미스코리아 선 발대회 '선(善)'에 당선된 뒤 연예계에 입문해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장윤정과 함께 KBS '토요 대행진' MC를 맡았다. 이후 KBS1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했다. 털털한 성격의 황말숙 역을 제대로 소화해내면서 젊은 층은 물론 중장년층 시청자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이후 '여명의 눈동자' '두려움 없는 사람' '여자의 방' '엄마의 바다' '모래시계' 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주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현대슈퍼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1

이 중 고현정을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준 드라마는 1995년 방영된 SBS '모래시계'다. 국내 드라마 중 역대 4위 시청률을 기록하는 '모래시계'는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하며 당시 '귀가시계'란 별칭을 얻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극 중 고현정은 카지노 대부의 외동딸이자 학생운동에 가담한 대학생 윤혜린 역을 맡았다.

이 작품은 고현정의 결혼 전 마지막 작품이었다. 당시 고현정은 '모래시계' 촬영 전 이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성공을 뒤로하고 은퇴

를 선언한 고현정과 정용진 부회장의 결혼은 당대를 대표하는 톱스타와 재벌그룹 후계자의 만남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으나 2003년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고현정은 '모래시계' 이후 약 10여 년간 공백기를 가지며 휴식을 보낸 뒤 2005년 SBS 드라마 '봄날'로 복귀했다. 이어 2006년 MBC '여유야 뭐하니'와 이듬해 MBC '히트'로 브라운관 복귀에 성공했고 2009년 MBC '선덕여왕'에서 미실 역을 맡아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때 보여준 명연기로 그 해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010년 SBS 드라마 '대물'에서 대통령 서해림으로 분해 2010년 'SBS 연기대상' 대상을 차지하는 등 두 해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리며 배우로서의 저력을 과시했다.

이후 '여왕의 교실' '디어 마이 프렌즈'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등의 드라마와 영화 '해변의 여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배우들' '미쓰GO'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등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영역을 넓혀갔다.

또한 고현정은 2012년 자신의 이름 중 '성'인 '고(Go)'를 딴 SBS 예능 프로그램 'GoShow'의 진행을 맡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매주 영화 주인공 오디션 상황이라는 설정 아래 스타의 매력과 캐릭터를 재발굴하는 신개념 토크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고현정은 KBS2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이후 2년 만의 복귀작으로 JTBC '너를 닮은 사람'을 택했다. 이달 13일 첫 방영을 시작한 '너를 닮은 사람'은 정소현의 단편 소설이 원작이다. 아내와 엄마라는 수식어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여자 정희주(고현정 분)와, 그리

고 그 여자와의 짧은 만남으로 '제 인생의 조연'이 되어버린 또 다른 여자 구해원(신현빈 분)의 이야기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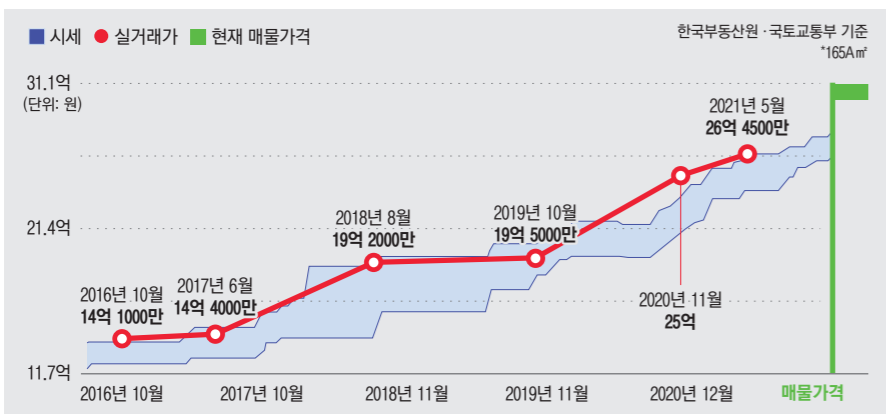
고현정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주인공 희주 역을 맡았다. 가난하고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보낸 희주는 성공한 화가이자 에세이 작가다. 가난마저도 빛나는 장식품으로 보이게 만들 만큼 당당하고 곧은 성품의 한 여자를 만나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

고현정이 이번 드라마에서 앞으로 어떤 연기를 선보일지, 또 극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감이 높다. '너를 닮은 사람'은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 30분 JTBC에서 방송한다. 이동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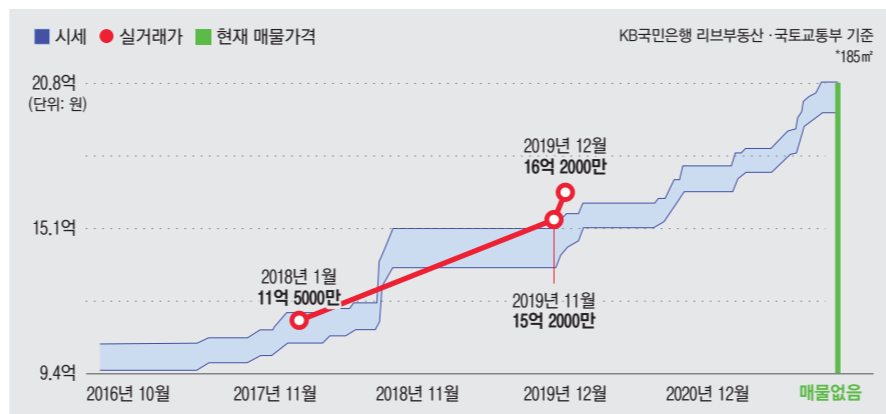
서초래미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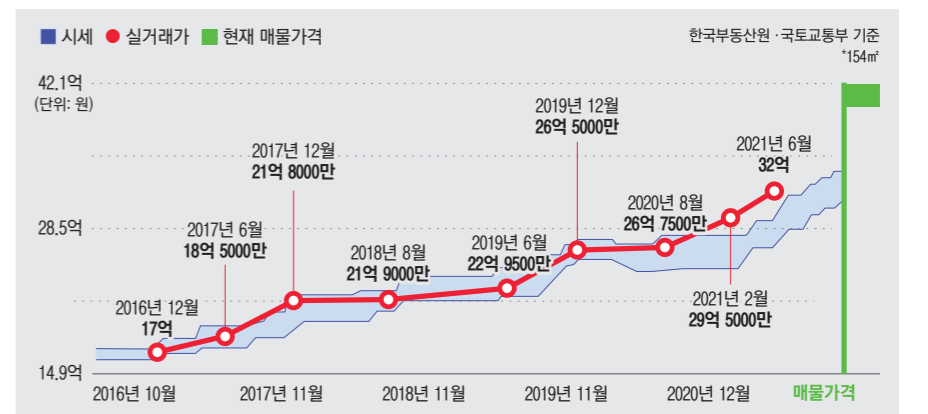
서초금호어울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7-97



서초동삼풍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우유철

전현대로템 부회장

우유철 전 현대로템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조선공학 석사,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철강업계 CEO 중 장기간 재직인 인물로 손꼽히는 우유철 전 부회장은 1983년 현대중공업에 입사 후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을 거쳐 2004년 현대제철로 자리를 옮겼다. 그가 현대제철로 자리를 옮긴 이유는 한보철강 인수를 위해서였다. 결국 한보철강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그는 한 해동안 무려

세 차레나 승진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2018년 12월 현대로템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2019년 12월까지 1년간 일했다. 현대로템 부회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현대하이스코 흡수합병을 이뤘는데 현대제철을 세계 10위권의 철강회사에 올려놓았다.



배영

현)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배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19년 8월까지 교수를 지냈다. 이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 포항공대 소셜데이터사이언스전공 주임교수,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편집위원, 한국연구재단



ICT융합연구단 전문위원, 포항공대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소장,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인터넷 권력의 해부' '위기의 청년세대: 출구를 찾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압축성장의 고고학' '지금, 한국을 읽다', '코로Ling(공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로 읽는 대한민국' 등이 있다.



황각규

전)롯데지주 부회장

약 40여 년간 롯데그룹에 몸을 담으며 롯데맨으로 활약해온 황각규 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경남 마산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국제부 부장, 롯데그룹 정책본부 국제실 팀장, 롯데그룹 경영혁신실 실장, 롯데지주 사장 등을 역임했다. 1979년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에 입사하며 롯데그룹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경영수업을 받던 중 신동빈 회장의 눈에 띄어 '신동빈의 오른팔' '신동빈의 남자'로

불렸다. 강한 추진력으로 신규사업 추진, M&A(인수합병) 등 굵직한 현안들을 진두지휘하며 롯데그룹의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이뤘다. 하지만 이후 부진이 지속되자 책임을 지고 지난해 8월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에서 물러났고 올해 3월에는 롯데지주 이사회 의장직도 내려놓았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중랑IC 접속 연결로 25일 개통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는 중랑IC 주변 일대 접속 연결로를 이달 2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연결로는 총 길이 105m, 폭 8m로 총 사업비 6억원이 투입됐다.

그동안 북부간선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내IC를 통해 돌아갔고 만성적인 차량 정체로 불편이 가중됐다. 하지만 이번 연결로가 개통됨으로써 돌아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양원지구와 신내동, 망우동 등에서 바로 북부간선

도로로 진입할 수 있어 기존 신내IC를 이용할 때보다 20분 이상의 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여기에 주변 양원지구에서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교통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구는 진입로 개설을 통해 신내IC로 집중되는 교통량이 분산돼 운행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여러 관련기관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구는 2018년부터 수차례 협의와 설득을 통해 이번 연결로 사업을 성공시켰다.

류경기 구정장은 "신내IC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중랑IC 접속 연결로를 개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명항 자주식 주차장 148면 개장

경기도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대명항 인근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대명항 어항지구 내 지상 2층 규모 자주식 주차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장하는 대명항 자주식 주차장은 연면적 3724.3㎡, 지상 1층~2층, 총 148면 규모의 주차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로써 기존 주차공간 286면을 포함해 총 434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됐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대명항 자주식 주차장 개장으로 연간 5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는 대명항 인근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김동석 사장은 "대명항 자주식 주차장 개장을 통해 대명항 일대의 주차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명항 자주식 주차장 정경

김포시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심의 통과... 2025년 준공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는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제6산단)'이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산단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해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계획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천안 제6산단, 풍세산단, 풍세2산단에서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천안시

발생하는 매립물량 폐기물에 한해 처리시설 용량을 반영하는 이행조건으로 심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폐기물매립용량이 금강유역

환경청과 협의된 110만㎡에서 약 46만㎡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통합심의회는 산업입지,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 경관계획 등 6개 분야 심의를 일괄 완료한 사항이다.

시는 심의 조건을 조속히 이행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11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에 조성되는 제6산단은 97만㎡ 부지에 총 3670억 원을 투입해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되며 2025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전기, 전자, 금속,

자동차를 비롯한 첨단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해 생산유발액 약 1911억원, 취업유발인구 1600여명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박상돈 시장은 "시는 이번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민간과 2조137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약 585만㎡ 규모 11개 산업단지를 추진 중으로 현재 9개 산업단지가 승인받아 토지보상 및 착공 중이고 나머지 산업단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맞춤형 기업선정 및 대기업 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